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84.9% 찬성률 81.8% 역대최고 기록 찍어 우리 투쟁 승리 했다!

역대 최고 투표율과 찬성률!

지난 9월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4일간 진행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가 나왔다. 이번 투표율을 보면 역대 최고 투표율과 찬성률로 마감됐다. 지난해 투표율이 약 60% 정도 였던 것에 비해 약 25% 높아진 84.9%가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률 또한 2019년 68%, 2020년 70%에 비해 올해 81.8%로 약 10% 가량 높아졌다.

이는 13일간의 파업을 통해 전체 조직이 올해 요구안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과정을 통해 합의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 협약만 있는 해의 경우 단체협약등의 요구안을 논의하기 어려웠던 구조 속에서 이번 파업을 통해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조건 개선등의 문제를 골고루 다뤘으며 이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10월 5일 노사 조인식 진행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2021년 산별현장 교섭을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인 노사 조인식만을 남겨두고 있다. 조인식은 노사 대표인 김영훈 의무부총장과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이 합의안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임금인상분에 따른 적용은 10월 5일 조인식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게 해당되며 소급분은 10월 25일 급여일에 지급 될 예정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대의료원지부는 운영규정 제 11조에 의거하여 2021년 9월 27일(월)부터 9월 30일(목)까지 실시한 산별현장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재적인원	투표자수	투표율	찬성	찬성률	반대	반대율
3,581	3,039	84.9%	2,487	81.8%	552	18.2%

<선전문 내용 정정합니다.>

지난 9월 10일 중식 선전문 내용 중 안산 진단검사의학과 인터뷰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오류기재 : ▲“병원에는 800명상 규모인데 외래 채혈실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5명이고 그 중에 4명은 비정규직”이라며 “아침 6시 30분부터 업무를 시작해 오후 6시까지 하루 11시간이 넘게 일하고 있다.”며 열악한 인력환경과 노동조건을 증언했다.

수정내용 : ▲“인력부족의 어려운 여건을 병원측에 읍소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아 다른 파트의 근무자를 빼서 업무 공백을 억지로 메꾸어 해결해 가고 있다. 이렇게 언제까지 버틸수 없다.”며 열악한 인력환경과 노동조건을 증언했다.

노정합의(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의 의미와 해설

올 해의 노정교섭은 1998년 이래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진행한 교섭에서 많은 성과를 도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23 산별총파업투쟁 선포 결의대회(보건복지부 앞, 2,000명 참가), 수요 산별투쟁, 대규모 전 조합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여론화·쟁점화투쟁, 조합원과 함께하는 출근선전전, 구호 마스크 쓰고 근무하기, 사상 최대규모 124개(136개 의료기관) 지부 동시 쟁의조정신청을 통해 압도적인 파업 가결(82% 투표에 90% 찬성), 9월 1일 파업전야제, 9월 2일 산별총파업 세종 정부청사 집결 투쟁과 참가 조직 등 전 조직이 함께하는 산별투쟁의 힘으로 산별총파업투쟁 요구에 대한 전 국민적 지지와 응원을 이끌어

내고, 산별총파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국회·정당의 움직임을 이끌어 냄으로써 산별총파업 돌입 직전 극적인 노정교섭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정책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음은 노정합의문이다.



□ 전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라 한다)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 새로운 감염병 대응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코로나19 의료재난 극복을 위한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이며, 노정이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이러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방안을 성실하게 협의하였다. 또한, 1년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치료와 돌봄에 희생·헌신해 온 보건의료노동자가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2021년 5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3차례의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12개)

- | | | |
|------------------|----------------------------------|-----------------------|
| ① 감염병 전문병원 | ②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 ③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
| ④ 공공병원 확충·강화 | ⑤ 예비타당성 조사, 국고 부담 | ⑥ 필수 운영경비 및 공익적 적자 지원 |
| ⑦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 ⑧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지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 | ⑨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
| ⑩ 사립대병원 등 공공성 강화 | ⑪ 공공의료 거버넌스 참여 | ⑫ 의료안전망 구축 등 |

□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과제 (8개)

- | | | | |
|------------|--------------------|------------------|---------------------|
| ① 직종별 인력기준 | ② 간호등급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③ 교육전담간호사제 | ④ 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
| ⑤ 불법의료 근절 | ⑥ 교대제 개선 | ⑦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 | ⑧ 비정규직의 고용 |

□ 관련 합의의 이행을 위한 조치사항 (2개)

- | |
|----------------------------------|
| ① 총액인건비 관련 및 당정협의 추진 |
| ② 이행사항 점검 및 국무총리실 부처간 역할 조정 지원 등 |

□ 부문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속합의 (3개)

- | | | |
|-------------------|------------------|------------------------|
| ① 재활·요양병원 운영 개선 등 | ② 정신보건서비스 질 강화 등 | ③ 혈액수급 안정화 및 헌혈센터 운영 등 |
|-------------------|------------------|------------------------|